

8월 북한매체 보도 동향

1. 농업정책

□ 농업정책

- 알곡증산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자 (로동신문 8.20)
 - 올해 봄철에 이어 여름철에도 기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논벼생육이 앞당겨져 8월 상, 중순에 이삭패기와 물알들기가 시작됨. 이런 조건에 맞게 여문률을 높이고 천알질량을 늘일 수 있도록 논벼비배관리를 잘 해야 함.
 - 이삭패는 시기 논벼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야 함. 논벼의 생육기간에 물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시기는 감수분열기부터 이삭패는 시기이지만 포화수상태의 물기함량이면 충분함.
 - 이삭패는 시기를 전후로 하여 잎색이 떨어진 포전들에서 2% 요소액과 여러 가지 미량원소들이 들어있는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다원소광물질비료, 나노빛합성강화제 등을 잎덧비료로 주어야 함.
 - 뒤그루감자심기를 질적으로 하며 북부고산지대에서 역병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함.
 - 원그루강냉이포전에서 습해와 비바람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계속 세우는 것과 함께 남새앞그루로 심은 강냉이의 가을걷이와 난알털기를 잘해야 함.
 - 가을걷이와 난알털기 준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농기계와 농기구들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함. 이동식탈곡기를 많이 만들고 낫, 솥돌, 삼태기 등 중소농기구들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모자라는 것은 보충해야 함.

□ 과학영농

-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티오균비료와 은정복합균 (로동신문 8.1)
 - 미생물학연구소의 티오균비료와 은정복합균은 농업부문에서 소문이 남.
 - 티오균비료는 알곡을 전혀 쓰지 않고 혼한 공업용광석폐기물을 기질로 하여 만드는 미생물비료로서 인비료를 대용할 수 있음.
 - 은정복합균에 의한 집짐승발효먹이생산기술도 알곡먹이의 이용률을 줄이고 겨울철 집짐승먹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이 기술을 도입하면서 집짐승의 폐사율을 줄이는데도 이바지하였음.
- 두 달 동안에 50여 대의 레이저종자처리장치를 (로동신문 8.1)
 - 레이저연구소에서 개발한 레이저종자처리장치는 도입단위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레이저종자처리장치는 시간당 처리능력이 크면서도 소비전력이 낮고, 크기가 작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음. 레이저종자처리장치의 도입으로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평균 10% 이상 높였다고 함.
 - 레이저연구소의 노력으로 두 달 동안에 50여대의 레이저종자처리장치를 여러 단위에 도입함.
- 왜 논두렁에도 농약을 뿌렸는가 (로동신문 8.8)
 - 안악군 용산협동농장에서 논두렁에 농약을 뿌려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았음.
 - 올해 기상조건을 보면 벼뿌리까지 피해를 주는 벌레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기에 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웠음.
 - 이 벌레는 대체로 논밭과 가까운 야산이나 과수원, 뽕나무밭의 마른 풀 밑에서 겨울을 남. 봄에는 새로 돌아난 풀을 갹아먹다가 대기온도가 평균 20℃ 이상이 되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시작함. 특히 새끼벌레는 땅속으로 들어가 벼뿌리까지 갹아먹음.
 - 이 벌레들은 대체로 풀숲과 논두렁의 구석진 곳에 무리를 지어 있다가 해가 어느 정도 퍼져 온도가 오르면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논두렁에서 포전으로 들어가 벼잎을 갹아먹으므로, 논두렁에도 농약을 뿌리면 구제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기상기후조건에 맞게 세운 기술적 대책 (로동신문 8.10)
 - 7월 중순까지 가뭄이 계속되는가하면 그 이후에는 장마가 시작하면서 일조율이 떨어지는 등 농사에 불리한 기상기후에, 은파군 일군들은 나노빛합성강화제를 논벼농사에 효과적으로 이용함.
 - 논벼에 나노빛합성강화제를 분무하면 빛에너지 전달, 전환이 촉진되어 빛합성효율을 높일 수 있음. 이 강화제를 분무하면 장마철에 일조율이 떨어져도 논벼의 잎색이 진해지고 흰잎마름병도 예방할 수 있음.
 - 1정보의 논에 강화제를 분무하려면 2%요소액 300리터에 10그램의 나노빛합성강화제를 섞음. 300리터의 물에 3킬로그램의 후민산염과 10그램의 나노빛합성강화제를 섞어서 분무할 수도 있음. 나노빛합성강화제는 대체로 아침부터 저녁에 분무하는 것이 좋음. 장마철에는 며칠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 예견될 때 분무함.

- 은파군의 농장들에서 기뭇과 장마철의 불리한 날씨로 이삭이 나오지 못한 강냉이의 경우 개꼬리꺼여주기방법을 취함. 개꼬리는 나오지만 이삭이 나오지 못한 강냉이인 경우 개꼬리를 꺼여주어야 함.
 - 개꼬리꺼여주기는 위에서부터 2번째와 3번째 잎 사이에 하는 것이 좋음. 강냉이가 다 수정된 다음에는 꺾었던 개꼬리를 잘라버려야 강냉이가 잘 여름.
- 과학농사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로동신문 8.11)
- 농업과학원 평안북도농업과학분원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확립하는 사업을 군단위로 하여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움.
 - 과학자들은 한해농사를 짓는데서 농작물생육예보가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상과 토양에 필요한 자료 등 농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치 있는 자료기지들을 구축하고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분석하여 농작물생육예보를 과학화해나가고 있음.
 - 과학자들은 새 품종개발사업과 연구성과 도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특히 새로운 영농기술과 방법을 개발 및 도입하여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데 이바지함.
- 플라즈마종자처리기술 (로동신문 8.11)
- 플라즈마종자처리기술은 종자를 과중하기 전에 플라즈마종자처리기 안으로 통과시켜 활성을 높여줌으로써 수확고를 높이는 기술임. 종자는 플라즈마종자처리기를 통과하는 과정에 저온플라즈마구역에서 빛복사, 전자기복사 등의 종합적인 영향을 받아 폴리펩당과 폴리펩당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고 효소들의 활성이 세지게 됨.
 - 플라즈마종자처리기는 전기마당처리와 마찬가지로 종자의 싹트는률을 높이는데 특히 싹트는률이 낮은 묵은 종자에서 그 효율이 아주 높음. 이 기술을 이용할 때, 싹트는률이 플라즈마 처리를 하지 않은 종자에 비하여 벼, 강냉이, 콩에서 각각 8%, 1~5%, 5% 높았으며 묵은 종자에서는 20% 높았다고 함.
 - 작물종자를 플라즈마처리하면 종자 속의 효소들의 활성이 세지며 식물체 안에 생긴 유해물질인 과산화물이 제거되고 대사활동이 강화되므로 내건성이 매우 세짐.
 - 또한 종자에서 싹이 일찍 나오고 튼튼하게 자라게 함. 결국 플라즈마처리를 하면 수확고가 높아지며 병견딜성이 강해지고 품질도 좋아짐.
- 효과적인 흰잎마름병 예방대책 (로동신문 8.20)
- 동림군 룡산협동농장에서는 흰잎마름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됨.
 - 흰잎마름병에 걸린 포전에서는 병에 걸리지 않은 포전에서보다 정보당 소출이 1~2톤이나 떨어짐.
 - 이삭패기 5~7일 전에 다류화복합살균제를 뿌려 흰잎마름병을 막음. 특히 흰잎마름병

에 견디는 힘이 약한 벼품종을 심은 포전들에 정보당 다류화복합살균제 2kg에 콩물을 1kg 정도 섞어 뿌려주었는데 효과가 컸음.

- 농장에서는 논벼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소식회를 정보당 300킬로그램을 쳐서 비바람에 의해 넘어지는 것을 막고 상처도 적게 입도록 함.
- 물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흰잎마름병을 막기 위해 고인물피해막이대책을 세우고 논물 관리를 포화수식, 간단물대기방법으로 진행함.

○ 백두대지에 과학농사 열풍이 분다 (로동신문 8.27)

- 백암군의 감자조직배양농장에서는 무바이러스감자종자를 대대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조직배양의 매 공정별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는 것과 함께 모기르기를 과학적으로 함. 또한 더 많은 다수확품종들을 생산하도록 하여 올해 모든 농장들에서 100% 다수확품종들을 심을 수 있게 함.
- 백암군에서는 해발고가 높고 부사땅인 지대적 특성과 기상기후조건이 포전마다, 필지마다 다른 것을 고려하여 수확고가 높은 올중, 중간중, 늦중들을 배합하여 심음.
- 백암군에서는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워 물거름 생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비알곡먹이를 많이 이용하는 등 먹이 문제를 해결하여 돼지마리수를 늘임.
- 분조에서는 균 200그램을 100리터의 물에 풀어 분쇄한 10톤의 풀에 골고루 뿌린 다음 저장탱크에 넣고 겨울에는 한 달 정도, 여름에는 24시간 정도 지나서 이용하였는데 총 먹이의 80%를 대신함. 그리하여 돼지마리수를 높여 물거름생산을 1.8배로 높임.
- 백암군에서는 올해 가뭄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하여 병해충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화학농약과 함께 지난 시기 그 우월성이 입증된 식물성 농약을 많이 만들어 이용함. 그 중의 하나가 쑥우림액으로, 쑥은 살충과 성장조절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음.

2. 밭농사

□ 두벌농사

○ 높은 소출을 내는 밀 대 수수 두벌농사 (로동신문 8.8)

- 중화군 삼성협동농장에서는 수십 정보의 밭에서 밀 대 수수 두벌농사를 지어 유례 없는 성과를 거둠. 특히 제5작업반에서는 정보당 평균 11톤, 최고 12톤 이상의 알곡을 생산함.
- 지난해 중화군 삼성협동농장에서 앞그루로 심고 가꾼 가을밀은 지난 시기 다수확품

종으로 알려졌던 밀보다 정보당 평균 수확고가 1톤 이상 더 높음. 특징적인 것은 키가 작고 이삭이 길며 이삭당 알수가 많음 것임. 또한 생육기일이 다른 품종보다 7~10일 짧으며 추위견딜성도 높음.

- 중화군 삼성협동농장에서 1대잡종수수를 뒤그루로 심었음. 특징적인 것은 지난 기간에 심던 수수보다 생육기일이 30일 짧고 대가 굵으며 키가 작아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많이 받지 않는 것임. 또한 알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크기 때문에 정보당 수확고가 다른 수수보다 평균 4톤 이상 높았음.
- 밀 대 수수 두벌농사를 지어서 좋은 점은, 김매기 노력이 적게 든다는 것임. 앞그루 밀을 심은 포전은 물론 뒤그루수수를 심은 포전에도 풀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임. 또한 병충해에 의한 피해를 막는데 품이 적게 듬.
- 그 결과 적은 품을 들이면서도 두벌농사를 안전하게 지어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일 수 있었음.

3. 감자농사

□ 감자농사

- 뒤그루감자, 메밀재배에서 나서는 문제 (로동신문 8.1)
 - 뒤그루감자(가을감자)와 메밀을 적기에 질적으로 심는 것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임.
 - 감자를 뒤그루로 재배하면 정보당 알곡소출을 최대로 높일 수 있고 다음해농사에 필요한 종자를 충분히 생산보장할 수 있음.
 - 뒤그루감자는 자라는 기간과 알이 드는 시기가 짧으므로 높은 온도에서 잘 자라면서도 수확량이 많은 품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음. 또한 역병에 견디는 힘이 센 품종을 골라 심어야 함.
 - 뒤그루감자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7월 하순~8월 초, 종자로 쓸 경우에는 8월 중, 하순에 심는 것이 좋음.
 - 메밀씨앗은 4~5일간 햇빛말리우기를 한 다음 물고르기를 하여 가라앉은 것만 골라 심어야 함. 이때 0.05% 후민산용액이나 0.05% 붕산용액에 24시간 정도 담갔다가 심으면 잎줄기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을 뿐 아니라 알이 잘 여물어 정보당 소출이 훨씬 높아짐.
- 감자수확고와 꽃망울 따주기 (로동신문 8.20)
 - 감자꽃망울따주기는 수확고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영농방법임. 백암군 상담농장에서 꽃망울 따주기를 했을 때 꽃망울 따주지 않은 포전에 비해 감자알들이 유달리 크고

잘 여문 것은 물론 정보당 소출이 5~10% 더 높았음.

- 비결은 꽃망울이 생기고 꽃피는데 들어가던 많은 영양물질이 감자알이 크는데 돌아갔기 때문임.
- 꽃망울이 생기기 시작하는 첫 시기를 놓치지 않고 송이채로 잘라버리는 방법을 사 용함.

4. 축 산

축산동향

- 알깨우기, 먹이생산공정의 현대화 적극 추진 (로동신문 8.27)
 - 알깨우는 공정의 현대화가 추진되고 있음. 여러 대의 알깨우는 기계를 제작한데 이 어 컴퓨터화 실현을 마무리하고 있음. 이 공정이 완성되면 조종실에서 온도, 습도, 알굴리기¹⁾ 등을 컴퓨터로 감시하며 알깨우기 실수율도 높일 수 있게 됨.
 - 자동적으로 먹이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고 혼합하는 먹이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실현 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음. 이 공정이 완성되면 과학적인 사양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먹이를 종전보다 7~10% 적게 들이면서도 닭의 증체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됨.
- 해발고 높은 등관에서 각종 먹이풀 재배에 성공 (로동신문 8.29)
 -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에 나선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해발 600미터 이상 되는 등관에서 각종 먹이풀재배에 성공하였음.
 - 지대가 높아 자연기후조건이 불리한 등관에서 땅다루기와 지력높이기, 각종 먹이풀 배치와 비배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정보당 먹 이풀을 평균 30톤, 최고 40톤 이상 생산하는 혁신을 창조함.
 - 정보당 잘 썬 풀거름과 진거름, 집짐승배설물, 구운 흙으로 만든 거름 수십 톤, 흙보산비료 5톤, 과린산석회질비료 300킬로그램을 포전마다 냄. 또한 5회 이상의 김 매기와 잎덧비료주기, 덧거름주기를 2회 이상 진행함.
 - 그 결과, 가뭄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두 달 남짓한 기간에 오리새, 붉은토끼풀은 50 센티미터 이상, 자주꽃자리풀은 30센티미터 이상 자랐음.

5. 기타 작물

과수

- 1) 암탉 따위가 알을 품어 까거나 기계로 알을 깔 때에, 알이 고른 온도를 유지하여 발육이 잘되도록 일정 시간마다 알을 굴리는 일.

○ 사과맛 경쟁 (로동신문 8.13)

- 북청군 룡전과수농장에서는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높여 맛 좋고 향기로운 과일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함. 수백정보의 밭에 키 낮은 사과나무를 심고, 지력과 나무의 생육상태, 과일생산량을 따져가며 정보당 5~10톤의 흑보산비료를 시비함.
- 덕성사과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일나무의 생육상태와 계절에 맞게 가지자르기 비율을 정함. 복숭아나무의 경우 생육상태에 따라 60~70% 혹은 30~40%의 가지자르기를 하여 종전보다 맛있는 과일의 수확고를 높임.
- 온천과수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축산과 과수의 유기적 결합을 잘하여 올해에도 정보당 5톤의 물거름을 내며 맛있는 과일을 생산함.

□ 남새

○ 덕을 보는 남새온실 (로동신문 8.13)

- 정주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철 신선한 남새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1만제곱미터의 채소온실을 세움.
- 겨울철에도 신선한 채소를 생산할 수 있게 온도와 관수보장이 잘 되도록 하였고, 온실벽을 모두 축열효과가 높은 돌로 쌓음. 그리고 질 좋은 부식토를 생산하여 두툼하게 펴주어 겨울에도 온실의 온도는 5℃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함.
- 정주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만 4천여제곱미터의 면적에 190여동의 채소온실을 건설하여 수백 톤의 채소를 생산 공급함.

○ 활성감탕을 버섯생산에 이용 (로동신문 8.13)

- 모란봉구역 채과도매소에서는 오수정화장들에서 오수를 정화할 때 나오는 활성감탕(활성슬러지)을 사용하여 버섯생산에 이용함.
- 활성감탕에는 리신, 알라닌, 로이신, 페닐알라닌 등의 필수아미노산을 비롯한 10여종의 아미노산이 균형적으로 들어있어 버섯의 질소영양원으로서의 이용가치가 매우 큼. 또한 칼슘, 칼륨, 철, 마그네슘을 비롯한 필수원소들과 비타민B1, B2, B6, B12 등 비타민복합체도 포함됨.
- 활성감탕의 거친단백질(조단백질, crude protein)함량은 쌀겨보다 3배 높음. 또한 아미노산 함량이 3배 이상 높고 오염근원인 무질소추출물 함량은 각각 약 1/5로 작음.
- 쌀겨 대신 활성감탕을 이용하면 버섯의 맛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오염도를 훨씬 줄이면서 수확고를 높일 수 있음.
- 활성감탕을 버섯재배에 이용할 때에는 물기를 20% 이하로 낮추어야 함. 활성감탕은 도시생활오수나 돼지, 닭, 오리공장의 폐수가 있는 곳에서 생산할 수 있음.

- 남새생산성과와 식물영양강화제 (로동신문 8.27)
 - 함흥남새전문공장 온실분장에서는 지난해 1,800여 톤의 갖가지 온실 남새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정보당 100톤 이상 내고 물, 비료, 농약주기, 온도와 습도 조절을 비롯한 남새재배와 관리운영을 잘하였음. 또한 식물영양강화제를 이용했다는 데 성공 비결이 있음.
 - 식물영양강화제는 식물뿌리에 붙어 자라는 곱광이로서 뿌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실모양으로 뻗어나가며 수분이나 영양물질을 흡수하여 뿌리에 넘겨주는 역할을 함. 강화제는 남새뿌리의 영양물질흡수능력과 냉해저항능력이 보다 높아지게 함.
 - 식물영양강화제는 식물뿌리의 겉면을 덮으면서 다른 병원균이 붙을 수 있는 공간을 없애줌. 또한 남새의 빛합성능력을 높여주고 꽃피기를 촉진시키며 열매가 많이 달리게 함.

6. 기타 보도 동향

□ 비료, 거름

- 시비년도 비료생산계획 빛나게 수행 (로동신문 8.4)
 -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는 현대적인 물전해공정과 가스화공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시비년도화학비료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에 모든 힘을 집중시킴.
 - 공업기술연구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1합성직장 합성탑을 표준조작법의 요구와 기술규정대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현장에 나가 기능공들과 함께 일하면서 암모니아합성효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함.
 - 발생로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새로운 기술혁신안과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발생로의 정상운전을 보장하고 유효가스성분함유량을 높임으로써 비료생산정상화에 이바지함.
 - 1,2합성직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예비기대, 예비부속품을 마련해놓고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켜 설비마다 만가동을 보장함.
- 하루 평균 50여 만 톤의 풀을 베어들인다 (로동신문 8.4)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매일 평균 50여 만 톤의 풀을 베어들여 풀거름생산을 하고 있음.
 - 자강도에서는 2일 현재 풀베기 계획의 50%계선을 넘어섬.
 - 양강도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풀베기실적이 2배 이상 높아짐.
 - 황해남도에서는 매일 1만 톤 이상의 풀을 베어 질 좋은 풀거름을 생산함.

- 평안북도에서는 매일 수만 톤의 풀을 베고 있음.
 - 평양시의 주변농장에서도 모든 역량을 풀베기에 집중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음.
- 시비년도비료생산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 (로동신문 8.7)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는 1월초부터 모든 비료생산공정에 만부하를 걸어, 시비년도기간 주체비료생산에서 최고기록을 돌파함.
 - 남흥노동계급의 비료생산성과는 선행공정뿐만 아니라 가스청정, 발생로직장들에서 조작공, 운전공들이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킨 결과임.
 - 암모니아, 요소직장 등 마감공정을 맡은 단위에서도 공정간, 교대간 긴밀한 연계를 보장하고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화학반응조건에 맞는 조작방법들을 습득하여 같은 조건에서 비료생산실적을 높였음.
- 이삭여문율과 받을잎의 영양상태 (로동신문 8.10)
- 받을잎의 영양상태가 좋아 기능이 강화되어야 이삭여문율을 높이고 천알질량을 더 늘일 수 있으므로, 비료주기를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진행해야 함.
 - 박천군 맹중협동농장 일군들은 먼저 이삭패기 전에 비료 주는 시기와 정보당 시비량을 바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함. 일정한 비율로 섞은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와 2% 요소액을 이삭패기 전에 5~7일 간격으로 2~3회, 이삭 팬 후에 2회 정도 잎덧비료로 주도록 함.
 - 다원소광물질비료는 정보당 2킬로그램을 600리터의 물에 타서 뿌려주었더니 병도 막을 수 있게 됨. 이삭이 팬 후 7~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주도록 함.
 - 또한 받을 잎들이 늘어지지 않게 하여 뿌리활성을 높이기 위해 물관리에도 깊은 관심을 돌림. 높은 온도의 피해를 받지 않게 물관리를 하는 데도 관심을 둬.
- 논벼천알질량을 늘일 수 있는 묘리 (로동신문 8.20)
- 금야군 봉흥협동농장의 일군들은 논벼천알질량을 늘이기 위한 논이 끝에 녹반수(류화철광산에서 나오는 갱물)를 이용하는데서 방법을 찾음.
 - 지난해 포전들에 녹반수와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2%요소액을 잎덧비료로 주었더니, 다른 포전에 비해 이삭이 고르게 나와 이삭당 알수가 많고 여문율이 높았으며 천알질량이 늘어나 정보당 소출이 좋아짐.
 - 녹반수에는 살균력이 강한 유허성분과 티오균이 들어있음. 그 결과 장마철 바람이 세게 불고 일조율이 떨어져도 벼가 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벼 대가 튼튼해지고 잎색이 진해져 생육이 촉진됨.
 - 생육후반기 영양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당 물 500L에 녹반수는 15~20리터,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2~2.5리터, 2% 요소액 10~12킬로그램을 혼합하여 시비하도록

함. 일조율이 낮을 때에는 정보당 물 500리터에 유산마그네슘 3~5킬로그램을 풀고 여기에 요소액이나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를 섞어 시비하도록 함.

- 냉해현상이 나타날 때는 정보당 물 500리터에 류산아연 1킬로그램을 풀고 여기에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와 요소액을 섞어 분무하게 함.
- 이때 이삭패기 전에 1회, 이삭 팬 후 10일 지나서 1~2회 정도 한주일 간격으로 잎 덧비료로 주도록 함. 비료를 시비할 때 벼 앞에서 이슬이 진 다음 정오시간을 피하여 오전과 오후에 시비하도록 함. 비가 내린 후에도 벼 잎들이 마른 다음에 시비하게 함.

□ 기상

- 8월 중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논벼, 강냉이 농사대책 (로동신문 8.6)
 - 8월 상순부터 중순에 주로 장마전선과 북서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에 한두 차례의 태풍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일부지방에서 소나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센 바람이 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평균기온은 8월 중순에 전반적 지방에서 21.1~25.9℃로서 평년보다 0.5℃ 정도 높고 지난해보다 0.6~4.2℃ 낮을 것으로 보고 있음.
 - 강수량은 8월 중순에 전반적 지방에서 50~185mm로서 지난해보다 서해안지방은 62~156mm, 동해안지방은 31~91mm 많겠으며 북부내륙지방은 3~19mm 적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일조율은 8월 상순에 전반적 지방에서 평균 35% 정도로서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견됨.
 - 논벼농사에서는 이삭매기와 패기가 진행되는 조건에서 이삭당 알수와 천알질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논물관리와 영양관리를 잘 해야 함.
 - 강냉이농사에서는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 이삭당 알수와 천알질량을 늘리는데 중심을 두어야 함.
- 심화되는 농작물생육예보사업 (로동신문 8.11)
 - 올해에 들어와 17개호의 <농작물생육예보>가 발표됨. 예보는 전국의 농업부문에서 모든 영농작업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과학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음.
 - 농작물생육예보는 기상수문국과 농업과학원의 강력한 지도 및 연구역량이 망라된 농작물생육예보지휘부에서 10일 간격으로 발표함.
 - 농업과학원에서는 기상수문국의 기상예보 자료에 기초하여 논벼, 강냉이, 밀, 보리, 감자, 콩, 유채, 낙화생, 목화과 남새, 과일나무 등의 생육상태와 해당한 농업기술적

대책 그리고 주요 병해충의 발생 상태와 그 구제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음.

- 9월 상순까지 예견되는 기상조건과 논벼농사 대책 (로동신문 8.28)
 -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에 북서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이동성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9월 상순 평균기온은 전반적 지방에서 16~22.4℃로서 평년 정도이며 지난해에 비하여 0.7~2℃ 높을 것으로 예견됨.
 - 9월 상순 강수량은 전반적 지방에서 23~82mm로서 평년보다 6~21mm 적으며 지난해에 비하여 함경북도에서 31mm 정도 적고 그 밖의 대부분 지방에서 15~81mm 많을 것으로 보임.
 - 현재 논벼는 이삭이 패거나 물알이 드는 시기임. 논벼농사에서는 여문물을 높일 수 있도록 논물관리와 영양관리를 잘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함.
 - 논벼에서 이삭이 패고 수정이 진행된 후 25~30일 간은 여물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임. 뿌리의 영양물질흡수능력과 잎의 빛합성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비배관리를 잘해야 함.
 - 물을 제대로 대지 못하여 물기대사가 지장을 받아 이삭이 제때에 패지 못한 논들에서는 이삭패기와 여물기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이삭패는 시기를 전후로 하여 성장촉진제를 4회 정도 분무하면 이삭패기와 여물기가 3~5일 정도 앞당겨짐. 이 경우 벼의 영양물질요구성이 높아지므로 질소, 인, 칼륨, 붕소 등 여러 가지 영양원소들이 들어있는 광물질 비료를 분무하여 벼의 영양상태를 개선해야 함.
 - 8월 하순~9월 상순 기간에 대부분 지방에서 지난해에 비하여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침수지들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을 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 농기계

- 능률 높은 이동식 벼탈곡기 창안제작 (로동신문 8.19)
 - 평원군농기계작업소에서 새로 만든 이동식 벼탈곡기가 제13차 전국발명 및 새 기술 전람회에서 금메달을 수여받음. 이 소형탈곡기는 길이 1.18미터, 너비 90센티미터, 무게가 130킬로그램 정도 됨.
 - 이동식 벼탈곡기의 발명으로 능률이 1.5배로 높아졌으며 벼먹임부분이 아래먹임식으로 되어있어 작업이 더 안전해졌으며 벼를 말끔히 털 수 있게 됨.
 - 제작공정이 간편하고, 정선장치의 효율을 높여줌으로써 지난 시기에는 5명이 하던 작업을 3~4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게 됨.

□ 수산업

- 수산물생산에서 최고실적 기록 (로동신문 8.1)
 - 평안북도수산물관리국 아래 수산사업소의 어로공들이 수산물생산에서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함.
 - 도수산물관리국적으로 지난 7월 중순에 벌써 연간 물고기잡기계획은 83.9%, 수산물생산계획은 77.8%로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함.
 - 이밖에도 용암포수산사업소와 관해세소어업사업소, 신도세소어업사업소를 비롯한 관리국 아래 모든 수산사업소와 세소어업사업소들에서 상반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연간 수산물생산계획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만선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어선용위성수신체계 (로동신문 8.1)
 - 지구환경정보연구소에서 어선들에서 위성화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직접 받아 해석처리하여 어장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보할 수 있는 어선용위성수신기를 연구제작하였음.
 - 이 수신기는 어선용위성수신체계에 기초하고 있는 첨단기술설비임.
 - 과학자들은 현지에서 위성수신기의 정상운동을 위한 기술방조를 주면서 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음.
- 수산물 생산에 계속 큰 힘을 (로동신문 8.29)
 - 황해남도협동수산경리위원회 아래 수산협동조합들에서는 배무이와 고깃배의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함.
 - 제령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은 상반기에 연간 바다나물생산계획을 수행할 수 있게 함.
 - 장연, 연안, 강령수산협동조합들에서도 일군들이 상반기 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한 기세를 이어 물고기잡이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음.
 - 웅진, 벽성, 룡당, 태탄수산협동조합들에서도 어장선택을 바로 하고 앞선 물고기잡이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구월, 웅진수산협동조합을 비롯한 수산협동조합들에서는 배무이를 다그치고 어구를 현대화하여 계획된 출어일수를 보장하는 한편, 생산된 수산물들이 인민들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